

# 본회의의 일괄 상정... 한국당 빼고 처리

**여야 4+1 선거법 최종 합의**  
문 의장 본회의의 개최 방침  
예산 부수법안·파트 順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경우  
회기 짧게 잡아 무력화 방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최경환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된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에서는 정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적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1은 이날 중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도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이날 밤이라도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

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표결이 어렵게 되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는다는 방침이다. 즉 24일이나 25일을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로 하고 이후 26일 임시국회를 다시 개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당은 본회의장 출입구가 있는 국회 로터너홀에서 농성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1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시 충돌이 발생하는 등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 민생법 또 묶이나

인사 청문회 차질 불가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면 민생법안이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회가 극한 대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후보자들에게 대한 인사청문회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의 본회의의 충돌이 임박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민생법안은 또 다시 발이 묶일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현재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200건이 넘는다.

하지만 4+1 합의 타결로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우선순위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바로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건을 가장 먼저 올리고 이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법안 통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밀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연동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추후 보자 청문회 중인 채택을 놓고 여당과의 삽바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국무총리 인준 과정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4+1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준 표결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인준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

감찰무마 의혹...26일 심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서갑원 예비후보 "순천 3배속 발전시킬 것"

공식 출마선언

서갑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1대 총선 순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을 연결하는 3선의원이 되어 그동안 고립되었던 순천을 구하고 순천을 3배속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순천의 주요 현안인 순천대 의대 유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 전라선 KTX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현안을 검증된 능력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노무현대통령 비서로 정치에 입문, 참여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부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민주당 돌봄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주철현 전 여수시장 "시민 일꾼될 것"

여수 갑 출마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2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총선에서 여수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춥쌀 시민이 세운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성공시켜 2022년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삶과 여수 사정을 잘 아는 시민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시민과 여수를 위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부



한 경험을 가진 저를 지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주 전 시장은 세계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여수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여수산단과 상생 문화 정착, 원도심 활성화, 연도교 조기 건설, 여객선 대중교통 개념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김성환 전 동구청장 "스마트 정치 실현"

광주 동남을 출마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했다.

대안신당 소속인 김 전 정장은 "자극의 정치분열과 대립, 민생을 외면하고 정당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사익정치에 매몰된 정치 현실을 보면서 폐단을 없애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20여 년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50대의 젊은 몸집으로 스마트한 젊은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국회의원의 3대 의무인 입법과 예산 및 행정부

견제활동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적 시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석형 전 함평군수 "일하는 정치 실천"

광주 광산 갑 출마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23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5일시장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갑 출마표를 던졌다.

이 전 군수는 "정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와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사람과 가족이 행복한 광산, 더 빛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치'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평군수 시절 문화축제인



나비축제를 만들고 함평과 광산에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며 "특히 빛그린산단은 '광주형 일자리' 근거지로

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선출됐으며,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박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농 지** 광주 광산구 신창동 77-70 토지 : 2175㎡(657.9평) 감정가 12억6천1백5십만원 최저가 12억6천1백5십만원
- 대 지** 광주 북구 중흥동 701-7 토지 : 235㎡(71.1평) 감정가 4억1천1백2십5만원 최저가 4억1천1백2십5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7번지 토지 : 337.476(102.089평) 건물 : 298.282㎡(90.23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 3천2백3십만원, 최저가 (70%) 7억2천2백6십만원
- 주 택** 광주 광산구 수완동 946-26 토지 : 354.615㎡(107.271평) 건물 : 329.717㎡(99.739평) 지하1층 지상2층 감정가 10억2천6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1천8백5십만원
- 아 파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트** 광주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6차 41평 감정가 4억1천1백만원, 최저가 4억1천1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